

민주당의 대반격 ... 국정원·軍 대선 개입 의혹 재점화

댓글·수사배제 총공세 ... “朴정부 3공 통치” 비난

“윤석열 알아추우기는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와중에서 대형 호재를 만나 여론에 총공세를 펴고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장 업무배제를 불처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재점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게시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지청장의 석연치 않은 수사 배제 사태까지 발생하자 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화력을 집중했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알아추우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수사 방해”라면서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은 왜곡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

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복원한 공소장 변경신청서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철회한다면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배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지청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 증언에 나서자 윤 지청장을 치켜세우는 한편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맹공을 퍼부으며 배후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꼼짝 못하게 할 거야”라며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은 우리 국민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왜곡과 은폐의 골목으로 토크몰이하려는 권력과 검찰의 거대한 음모를 확인하는 날”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공약(空約)폐기, 공안(公安)정치, 공포(恐怖)몰이의 ‘3공 통치’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도 빼놓지 않고 대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작업 의혹과 관련,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따로 확보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한 ID와 게시글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 수사기관이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 “가림막 수사, 덮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해 5만5000여회에 걸쳐 선거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5만5000건의 트위터엔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리트윗 되면서 수백만명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라보는 곳이 달라...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근(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국정원 등 의혹 커지자 “대선 불복” 불끄기

새누리당은 21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거세지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대선패배 명령’, ‘대선 불복’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이 다시 불붙는 듯한 상황을 경계하며 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 뒤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국정원 대선개

입 의혹을 수사해 온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배제와 관련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자 경계감속이 상태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띤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0·30 재·보선 현장인 ‘경기도 화성갑 집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되도록 대선패배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질적인 거리정치로 일삼는 것은 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는 ‘몽매시간’이 아니고 무엇인가”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 잠잠해지기는커녕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작심 폭로 “수사 초기부터 외압”

서울중앙지검 국감 ... 지청장·지검장 진술 충돌

2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도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대화를 했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고자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 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

윤석열 지청장

“공소장 변경 신청 보고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화 내”

조영근 지검장

“사적 대화...정식보고 아나 이렇게 항명할 줄 몰랐다”

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뒷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지검장은 이어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 했지만 윤 지청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 검찰의 기준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김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다.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런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 <p>전국점망</p> <p>서울 삼일로14길 삼일로 47구 02276-0367 ~ 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옆 02347-5110 종로22점 금강리화 옆 02703-0220 송파점 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성남점 선릉역 2번 출구 02955-1838 경기도 인천시(구 시인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 부평역 옆 032617-1110 수원점 남문 옆 031946-5110 오정점 오정역 옆 031921-6655 안양점 안양역 옆 031700-0110-1 평택점 평택역 옆 031698-6110 용인점 용인역 옆 031036-1030 오산점 오산역 옆 031378-4183 부천점 부천역 옆 03293-4400 남양주점 남양주역 옆 032829-4333 부산점 부산역 옆 031818-6800 서안점 618-0016 남포점 남포역 옆 051266-7200 울산점 울산역 옆 05236-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옆 05537-4000 진주시점 진주역 옆 0557-468970 대구 점 동인점 동인역 옆 053425-4440 상곡점 상곡역 옆 053425-1511 남양주점 남양주역 옆 033425-7576 경북 포항점 포항역 옆 054644-5110 충청남도 양양점 양양역 옆 054339-2246 충청남도 공주시점 공주시점 옆 05225-8110 광주점 백운점 옆 02601-4477 전남 순천시점 순천시점 옆 010702-8945 전북 진주시점 진주역 옆 03325-5725 군산점 군산역 옆 033946-0198 익산점 익산역 옆 033039-5000 남원점 남원역 옆 033032-3525 4대면 대전점 042324-5110 대전점 대전역 옆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옆 042265-4000 충청남도 연기점 연기역 옆 041653-2988 광주점 광주역 옆 041652-5110 충북 청주시점 청주시점 옆 043222-1177-8 충청남도 보령점 보령역 옆 043822-4114 강원 강릉점 강릉역 옆 033647-6586 순천시점 순천시점 옆 03353-5110 제주 제주점 제주역 옆 064753-4355</p> | <p>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div> <p>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0.8em;"><tr><th>광역시</th><th>광역시</th><th>광역시</th></tr><tr><td>광주점 (06)2225-5110 문의전화 (06)2255-5110</td><td>부산점 (052)651-4477 문의전화 (052)651-4477</td><td>인천점 (031)752-8845 문의전화 (031)752-8845</td></tr><tr><td>대구점 (053)425-4440 문의전화 (053)425-4440</td><td>서울점 (02)222-1177 문의전화 (02)222-1177</td><td>대전점 (042)222-3388 문의전화 (042)222-3388</td></tr></table> | 광역시 | 광역시 | 광역시 | 광주점 (06)2225-5110 문의전화 (06)2255-5110 | 부산점 (052)651-4477 문의전화 (052)651-4477 | 인천점 (031)752-8845 문의전화 (031)752-8845 | 대구점 (053)425-4440 문의전화 (053)425-4440 | 서울점 (02)222-1177 문의전화 (02)222-1177 | 대전점 (042)222-3388 문의전화 (042)222-3388 |
|--|--|--|-----|-----|-----|--|--|--|--|--|--|
| 광역시 | 광역시 | 광역시 | | | | | | | | | |
| 광주점 (06)2225-5110 문의전화 (06)2255-5110 | 부산점 (052)651-4477 문의전화 (052)651-4477 | 인천점 (031)752-8845 문의전화 (031)752-8845 | | | | | | | | | |
| 대구점 (053)425-4440 문의전화 (053)425-4440 | 서울점 (02)222-1177 문의전화 (02)222-1177 | 대전점 (042)222-3388 문의전화 (042)222-3388 | | | | | | | | | |